

광공업 생산, 광주 '웃고' 전남 '울고'

광주 전자부품·자동차 호조

전남 -6.9%로 감소세 지속

통계청 2분기 지역경제동향

■ 2013년 광주·전남 주요 경기 지표

구분	전국(1분기→2분기)	광주	전남
생산(10=100)	104.5(-1.7)→107.7(-8.0)	99.6(-1.6)→112.3(8.0)	105.4(-7.1)→103.7(-6.9)
고용(만명)	2,418(1.1)→2,533(1.3)	69(3.0)→71(3.0)	89(1.5)→93(0.7)
수출(억불)	1,355(0.4)→1,413(0.8)	38(12.0)→41(14.1)	105(6.1)→103(-6.4)

※생산은 광공업생산자수, 고용은 취업자수, ()안의 숫자는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호남지방통계청)

장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광주는 점차 웃고 전남은 울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올해 2·4분기 광주지역은 광공업 생산과 수출 증가 등 경기가 다소 호전됐지만 전남지역은 광공업 생산의 감소세 지속과 수출 감소폭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광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국 평균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8% 감소했다.

광주의 성장세는 전자부품·자동차 등이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증가율을 보면 전자부품이 75.4%, 기계장비가 20.6%, 자동차가 6.1%로 높았다.

대형소매점 판매도 -3.6%에서 -2.3%로 감소세가 둔화해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백화점판매는 -4.4%로 다소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3.0% 증가로 전 분기

와 같고 고용률은 57.0%로 전 분기보다 0.5%p 증가했으며 소비자물가는 전 분기의 1.1%에서 0.9%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건설수주는 -36.8%에서 -56.7%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이밖에 수출은 12.0%에서 14.1%로 증가세가 유지됐으며, 인구순이동은 전 분기 31명 순유입에서 606명 순유출로 전환했다.

반면 전남은 광공업 생산의 감소세가 지속하고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6.9%로 전 분기(-7.1%)의 감소세를 지속했고 대형소매점 판매는 -4.0%에서 -1.1%로 감소세가 둔화했다.

취업자 수는 1.5% 증가에서 0.7%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고용률 62.9%로 고용률 증감이 -0.9%p를 기록해 전분기(-0.7%p)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또 소비자물가는 1.2%에서 1.0%로 오름세가 둔화했고, 건설수주는 13.9% 증가에서 -66.7%의 감소로 전환했다.

수출 감소는 우려되는 수준으로 광주의 증가세와 대비를 이뤘다.

지난해 4·4분기 19.6% 증가했던 것이 올해들어 6.1%로 떨어졌고 1·4분기에는 -6.4% 감소로 전환했다.

다행히 인구순이동이 2851명 순유출에서 88명 순유출로 줄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분쟁위 결정 보험금, 보험사 지급해야

금융감독원 지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수술 보험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자궁수술 등 8가지 수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점검한 결과 청구 건수 32만3000건(2689억원) 가운데 미지급 보험금(과소지급 포함)이 1만2000건(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또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1월 이후 내려진 분쟁 위 조정 결과를 검토하고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다.

일괄 구제대상은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 ▲편질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 ▲대퇴골두 무월경 피사 상해보험금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분조위 결정 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건을 찾아내 올해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의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주도의 자율 소비자주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기 별 보험금 미지급 사례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자체점검을 벌여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진품·위조상품 식별 이렇게..

8일 광주지방정부합동청사를 찾은 민원인들이 1층 로비에서 광주본부 세관 주최로 열린 '위조상품 비교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본부 세관은 오는 13일까지 진품과 위조상품 비교 전시회를 통해 소비자들의 식별능력을 높이고 위조상품 사용에 의한 피해와 지식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성 속옷, 삼각·트렁크서 '폴 사각팬티'로 진화"

'바디가드' 조사

'남성들도 이제 속옷을 패션으로 입는다.' 좋은사람들의 패션 언더웨어 브랜드 '바디가드'는 최근 10년간 남성 팬티 판매비중을 분석한 결과 삼각팬티와 트렁크에서 '폴 사각팬티'로 불리는 드로즈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남자속옷 가운데 드로즈의 판매비중은 2002년 11%에서 2007년 37%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삼각팬티(27%)와 트렁크(36%) 판매를 넘어

섰다 지난해에는 68%를 웃돌며 남성 속옷의 대표 아이템으로 등극했다.

조준의 바디가드 마케팅팀 대리는 "드로즈는 트렁크와 삼각팬티의 장점을 더한 제품으로, 기능성과 패션성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선호도와 만족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임스딘은 인체공학 디자인을 적용한 드로즈 '바디가드'를 오는 14일 출시할 예정이다. 바디가드는 핏이 차지 않아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과일·채소음료 상당수 '당분 덩어리'

컨슈머리서치 조사.. 58개 주스종 19개 콜라보다 많아

건강에 좋은 웰빙음료로 알려진 과일·채소음료 가운데 상당수의 당분 함량이 탄산음료인 콜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58개 주스(200ml기준)를 조사한 결과 33%인 19개 제품의 당류 함량이 콜라보다 많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19개 주스의 당분 함량은 하루 권장 치의 절반에 육박해 많은 양

을 섭취하면 비만이나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주스 제조업체는 남양유업·롯데칠성음료·매일유업·빙그레·웅진식품·서울유유·풀무원·한국고카를라·해태음료 등 9개사다.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남양유업의 'It's Fruits 키위'였다. 190ml 1병에 무려 29g의 당분이 들어 있어 각설탕(3g) 10개에 육박하는 양이다.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의 당 섭취 일일 권장량이 50g인 점을 고려하면 자그마한 주스 한 병으로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셈이다.

2위는 당 함량이 27.8g인 남양유업의 '애플 포도', 롯데칠성음료의 '델몬트 오리지널 매실', 해태음료 '원키스트 멀티비타 100 사과' 등 3개 제품이다.

서울유유 '아침에 주스 포도'(27.6g), 풀무원 '아임리얼 프루트에이드자몽', 풀무원 '풀아임리얼 과체제일키위'(27.4g) 등도 1회 제공량이 많거나 당 함량이 높았다.

/연합뉴스

아웃도어 브랜드 '계절 파괴 마케팅'

밀레·블랙아크·코오롱

겨울 다운점퍼 할인판매

아웃도어 브랜드가 겨울용 다운 점퍼 신상품을 한여름에 앞당겨 할인 판매하는 '계절 파괴' 마케팅에 잇따라 나섰다.

8월 아웃도어 업계에 따르면 엠리미티드는 울가를 출시 예정인 '브로드포크 2 윈드재킷'을 이날부터 300원 할인으로 할인 판매하기 시작했다.

정가 19만8000원에서 30% 할인을 적용해주고 경품으로 카드 지갑, 화보집 등을 증정한다.

블랙아크도 이날부터 한 달 동안 다운 점퍼 신상품을 최대 15만 원 할인 판매한다. 경량 다운인 '하프다운 재킷', 방풍 기능성 'B5XG7R 재킷' 등을 내놨다.

주력 상품인 'B블리자드 다운 재킷'과 'B타이거 다운재킷'은 행사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각각 38%, 34% 할인된 29만8000원, 21만원에 판매한다.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도 지난 7일부터 슬림 다운 재킷을 35%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정가 19만5000원인 '아스터 다운재킷'과 '아스틴 다운재킷'을 12만8000원에 살 수 있다.

/연합뉴스



밀레 '아스터 다운재킷'

패션업체 행차는 북유럽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케이프를 한국에 들여온 지 1주년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구스다운(거위털) 재킷 신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코오롱스포츠는 가장 이른 지난달 30일부터 겨울용 다운 의류를 할인 판매하기 시작했다.

오는 9월 1일까지 13가지 다운 재킷 신상품을 최대 9만원까지 할인 판매한다.

코오롱스포츠의 간판 다운 재킷인 '헤스티아'와 '벤탈', '테라노바', '안타티카' 등의 디자인과 기능성을 새롭게 손봐 출시했다.

/연합뉴스

백화점, 폭염속 '크리스마스 마케팅'

롯데백화점 광주점

겨울 상품 최대 80% 할인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겨울을 주제로 한 마케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일부터 18일까지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에는 행사 상품 최대 80%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봄가을 시즌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계절 상품전'도 함께 진행한다.

진도모피 등이 참여하는 '한여름의 모피 페스티벌' 행사를 지역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유명 모피

브랜드가 대거 참여하며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의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모피 중에서도 고가로 불리는 '블랙그라마' 제품을 절반가 이상으로 할인해서 판매하는 한정 상품전도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박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을 연상케 하는 이벤트로 박스에는 최대 5배 가격 상당의 의류, 패션잡화, 주얼리, 리빙패션 아이템을 1만원·3만원·5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고성성 롯데백화점 광주점 홍보팀장은 "폭염 속 잠시나마 계절을 거슬러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www.kwangshin.ac.kr

【주요일정】

1. 일반전형
 -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 ② 전형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 ④ 등록기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0	-
	석사	신학박사(Th.M.)	0	구역,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0	-
	석사	신학박사(M.Div.)	0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사로 36

hello tv

헬로tv 가입하시면 LG LED TV 반값!

42형 LG전자 LG LED TV 477,400원 (VAT 포함)

23형 LG전자 LG LED TV 모니터 253,440원 (VAT 포함)

헬로tv + LG LED TV 상품 안내 (VAT 포함가)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	3,088,800원	2,431,440원	13% ↓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	1,176,120원	788,040원	26% ↓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	427,680원	364,320원	6% ↓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	332,640원	253,440원	16% ↓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입학문의 1588-3450